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실태 및 예방 대책

강문설\*

### Status and Prevention of Negative Behavior due to Disinhibition Effect in SNS(Social Network Service)

Moon-seol Kang\*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Gwangju University, Gwangju 61743, Korea

#### 요 약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카카오톡,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SNS 저격’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SNS 저격에 대한 죄의식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예방 대책을 통해 SNS 시대에 걸맞은 인식과 규범을 갖추으로써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ABSTRACT

Social Network Service(SNS) users are increasing globally. Within that trend, ‘SNS attacking’ victims are increasing in social network service space like KakaoStory, facebook, or Instargram as people damage others’ personality or reputation. In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awareness of negative behavior attributed to disinhibition effect with undergraduates who are the group of people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the most diversely in smart environment and devise preventive measures to reduce social network service attacking victims and attackers. In social network service space, undergraduates are hardly aware of other people’s personality, defamation, or invasion of privacy, and the level of guilt they feel towards social network service attacking is seriously low.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preventive measures so that they can be equipped with awareness and regulations right for this social network service age and can prevent negative behavior resulted from disinhibition effect.

**키워드** : 사회 관계망 서비스, 탈억제 효과, 단톡방 폭력, 사이버 불링, SNS 저격

**Key word** : Social Network Service, Disinhibition Effect, Wide talk room Violence, Cyber Bullying, SNS attacking

Received 28 September 2016, Revised 29 September 2016, Accepted 20 October 2016

\* Corresponding Author Moon-Seol Kang(E-mail:mskang@gwangju.ac.kr, Tel:+82-62-670-2565)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Gwangju University, Gwangju 61743,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ce.2016.20.12.2370>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 I. 서 론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통계 포털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우리나라의 이동전화 가입자는 6천만 명, 스마트폰 가입자는 4천 5백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1].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의 활용은 개인 간 소통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대상과의 소통까지 가능하게 하여,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2].

SNS 이용의 증가로 인해 개인 간 정보전달이 용이해졌고, 기업에서도 마케팅 전략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정책 홍보나 대국민 알리미 서비스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는 기존 인맥과의 원활한 관계유지와 소통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일상생활에 활력을 주고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공유할 기회가 많아지고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대중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아 정보의 공유와 접근 측면에서 SNS의 활용도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SNS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의 침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정확하지 못한 정보로 사회적 갈등 및 일상생활의 방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3,4].

특히, 자신에 대한 험담과 욕설이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체방(단톡방)을 통해 확산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여고생 사건, 국내 대학에서 단톡방의 성희롱(성폭력) 사태, 이○○○○그룹 회장이 사망했다는 루머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적 처벌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5]. 이들 사건에서 ‘나쁜 짓’은 집단 괴롭힘, 성희롱과 루머 유포였다.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하나같이 단톡방의 외형적 폐쇄성 뒤에 숨어 자행되었다. 즉, SNS 시대에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소통 매체가 과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악행의 무대로 변질되고 있다. 더 빠르고 더 촘촘하며 더 은밀하게 연결되는 SNS의 특성은 더 악질적인 괴롭힘과 성폭력, 루머를 양산한다.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톡방 폭력’

등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증가할 수도 있다[6,7].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종류의 SN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억제 효과의 개념과 이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SNS의 이용 형태와 추이, 탈억제 효과의 개념과 이로 인한 부정적 행위들에 대한 인식과 처벌 규정,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들에 대한 생각들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인격과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인식(성립 요건)이 매우 낮고 처벌 기준에 대한 개념도 미흡하였으며, SNS 저격에 대한 죄의식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한 예방 대책을 통해 SNS 시대에 걸맞은 인식과 규범을 갖추으로써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탈억제 효과의 개념과 부정적 행위, SNS의 이용 형태와 추이, 관련 연구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연구 대상 및 방법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생각에 대한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제안한 예방대책을 설명하고, 5장에서는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을 기술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관련 연구

### 2.1. 탈억제 효과의 개념

탈억제 효과(Disinhibition Effect)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보다는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 상에서 스스로를 잘 억제하지 못하고 쉽게 공격적이 되거나 분노를 스스로 없이 표현하는 경우를 나타내는 말이다[8]. 대표적인 예로는 인터넷 댓글이 있으며, 이 인터넷 댓글이 가지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익명성과 비대면성이다. 온라인 탈억제 효과는 자신이 누구인지 숨길 수 있을 때, 평소 자신을 억제하던 사회적 규칙들을 무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휴스턴 대학교에서는 이민에 관한 기사에 달린 댓글 900개를 분석했고, 실명 사용자들의 댓글 중 29%가 수준 낮은 댓글이었던 반면, 익명 사용자의 댓글

에서 그 비율은 53%로 나타난 결과로부터 이 효과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익명성은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익명성은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창조적 사고와 문제해결을 도와준다. 익명으로 유지되는 게시판들은 나름대로의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다[8].

## 2.2. 탈억제 효과의 부정적 행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면적인 현실 세계에서 일상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슴없이 말하거나 행동하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긴장이 풀리고 무엇인가에 얽매어 있다는 느낌을 적게 가지게 되고, 보다 개방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게 된다. 탈억제 효과는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에게 무례한 언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가혹한 비판·노여움·증오·위협을 가하며, 현실세계에서는 잘 찾아가지 않는 음란물 사이트나 폭력사이트를 배회하게 만드는 등 부정적인 행위가 대면적인 현실 공간보다 비대면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다[9].

## 2.3. SNS 이용추이 및 이용행태

우리나라 대표적인 SNS로 거론되고 있는 카카오토티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자의 90.0% 이상이 사용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밴드, 인스타그램 등의 이용자까지 고려한다면 인터넷 혹은 모바일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모바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모바일 기기 보급의 보편화로 메신저, SNS, 쇼핑, 클라우드 등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이용이 증가하고, 주 이용층인 20~30대 외에도 50대의 이용률이 급증하는 등 모바일 인터넷 이용이 전 연령대에 걸쳐 생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한국미디어패널조사[4]에 따르면 2015년 SNS 이용률[43.1%]은 2011년[16.8%] 대비 5년 만에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고, 20대의 10명 중 7명이 SNS를 이용하고 있을 정도로 20대의 SNS 이용률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용하는 서비스도 페이스북, 카카오토티, 트위터 등 개방형과 폐쇄형 SNS를 고루 활용하고 있다. 여성의 SNS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성별 SNS 이용률 격차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남성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개방형 SNS를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카카오토티, 인스타그램 등 폐

쇄형, 시각형 SNS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자의 하루 평균 서비스 이용시간은 1시간 5분, 최대 SNS 이용 세대는 20대로 하루 평균 1시간 20분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 2.4. SNS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관련연구

SNS로 인한 부정적 행위와 관련된 연구는 세 가지의 범주, 즉 SNS 중독, SNS 이용 행태와 행동, SNS에 게시된 디지털 자산의 사후 관리로 분류할 수 있다.

SNS 중독과 관련하여 이상화[10]는 올바른 SNS 사용으로 사회적 문제와 청소년 범죄의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SNS 중독지수를 제안하였고, 김종욱 외 [11]는 사회화, 즐거움, 고독감이 SNS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으며, 정구철 외[12]는 대학생들의 내현적 자기애와 분노 표현, SNS 중독 경향성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김병수 외[13]는 자기표현, 네트워크 관리, 정보검색은 서비스 습관을 매개로 하여 서비스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SNS 이용 행태와 행동과 관련하여 강민정[14]은 SNS의 활성화를 위해 공감 표현을 돕는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감 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하였으며, 조용길[15]은 자기노출이 SNS 사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즐거움과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유정 외 [16]는 SNS 이용자의 시민행동과 불량행동, 사회적 유대감,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및 이용자 만족도간의 구조적 관계를 고객행위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전범수[17]는 SNS 자기 노출 집단(적극적 노출 집단, 중간 노출 집단, 소극적 노출 집단)에 따른 이용자의 동질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김민정[18]은 사회 인구변인에 따른 사용자의 SNS 이용 동기, 선호하는 SNS 유형, 주로 이용하는 SNS 서비스 유형의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문운석[19]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게시된 사진, 동영상, 음악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들이 사용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게시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문제나 남은 유가족들의 정신적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 차별화된 관리방법으로 역할 기반 권한위임 기법을 적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 III. 연구대상 및 방법

#### 3.1. 연구 대상

본 논문에서는 SNS를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의 이용 형태와 인식, 탈억제 효과의 개념과 이로 인한 부정적 행위들에 대한 인식과 처벌 기준,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6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직전인 15주차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교양교과목으로 개설된 “인터넷 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 102명과 수강하지 않은 학생 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3.2. 연구 도구

본 논문에서는 SNS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부정적 행위에 대한 예방 대책을 도출하기 위한 설문지를 만들어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SNS의 이용 형태와 인식, 탈억제 효과의 개념과 이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조사하여 연구 목적에 적합하도록 작성하였다.

#### 3.3. 연구 절차

연구 대상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SNS의 이용 형태와 인식, 탈억제 효과의 개념과 이로 인한 부정적 행위들에 대한 인식과 처벌 규정, SNS 저격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룹 A는 “인터넷 윤리” 교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SNS와 관련된 교육(이론, 언론에 보도된 SNS 관련 동영상 뉴스, 50분 분량의 ‘우리가 모르는 SNS의 비밀’이란 시사 프로그램)과 퀴즈를 실시하고 SNS 이용과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정도와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룹 B는 “인터넷 윤리” 교과목이나 사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일반 교양교과목 수강생에게 SNS 이용과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정도와 실태를 조사하였다.

#### 3.4. 자료 분석

SNS에 대한 대학생들의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 데이터는 엑셀(Excel)의 통계 함수와 데이터 분석(t-검정) 기능을 이용하여 두 그룹간의 차이를 분

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alpha=0.01$ 로 설정하였다.

### IV. 분석결과 및 예방대책

#### 4.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대상자 191명 중 SNS 관련 교육을 받은 그룹A가 53.4%(102명), SNS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 B가 46.6%(89명)이었으며, 성별 구성에서는 여학생(106명, 55.5%)이 남학생(85명, 44.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 group | male | female | total | %     | remarks |
|-------|------|--------|-------|-------|---------|
| A     | 37   | 65     | 102   | 53.4  |         |
| B     | 48   | 41     | 89    | 46.6  |         |
| total | 85   | 106    | 191   | 100.0 |         |
| %     | 44.5 | 55.5   | 100.0 |       |         |

#### 4.2. SNS의 이용 형태와 인식

SNS의 이용 형태(이용 여부, 이용 기간, 이용 개수, 1일 이용 시간)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94.2%(180명)가 SNS를 이용하고 있으며, SNS의 평균 이용기간은 5.2년, 이용하는 SNS의 평균 개수는 1.3개, SNS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은 2.75시간으로 나타났다.

Table. 2 use the form of a SNS

| group | use  |     | period of use |      |      | count of use |      |      |     | hours |      |      |  |
|-------|------|-----|---------------|------|------|--------------|------|------|-----|-------|------|------|--|
|       | Y    | N   | ~4            | ~9   | 10~  | 0            | 1    | 2    | 3~  | ~2    | ~4   | 6~   |  |
| A     | 98   | 4   | 38            | 50   | 14   | 4            | 63   | 29   | 6   | 58    | 22   | 22   |  |
| B     | 82   | 7   | 45            | 30   | 14   | 7            | 57   | 22   | 3   | 59    | 17   | 13   |  |
| total | 180  | 11  | 83            | 80   | 28   | 11           | 120  | 51   | 9   | 117   | 39   | 35   |  |
| %     | 94.2 | 5.8 | 43.4          | 41.9 | 14.7 | 5.8          | 62.8 | 26.7 | 4.7 | 61.3  | 20.4 | 18.3 |  |

SNS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SNS는 개인적인 공간이다. SNS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1. 개인적인 일기-자유롭게 의견 표출 가능, 2. 공개된 광장-공개적인 교류, 말조심해야, 3. 기타[서술])에 대한 조사대상자와 NATEQ[20](음영표시)의 조사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참고로 네이트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공개된 광장(공개적인 교류, 말조심해야)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8.9%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SNS에 대한 인식에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Table. 3** recognition of the SNS

| group | 1    | 2    | 3   | total | N     | %           |
|-------|------|------|-----|-------|-------|-------------|
| A     | 19   | 80   | 3   | 102   | 1     | 1,269 20.1  |
| B     | 35   | 42   | 12  | 89    | 2     | 3,090 48.9  |
| total | 54   | 122  | 15  | 191   | 3     | 1,964 31.0  |
| %     | 28.3 | 63.9 | 7.8 | 100.0 | total | 6,323 100.0 |

(1 : personal diary, 2 : the public space, 3 : other)

SNS를 “개인적인 일기(자유롭게 의견 표출 가능)”라고 생각하는 대학생들의 비율이 그룹 A에서는 18.6% (19명), 그룹 B에서는 39.3%(35명), 조사대상자 전체에서는 28.3%(54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검정에서 p-값이 유의수준 1%보다 작으므로 교육을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SNS 관련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SNS에 대한 인식이 올바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약 30% 정도는 SNS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analysis result for recognition of the SNS

| group | mean  | var.  | N  | df  | t stat. | P(T<=t) tailed | t dismissed tailed |
|-------|-------|-------|----|-----|---------|----------------|--------------------|
| A     | 1.808 | 0.156 | 99 | 174 | 3.698   | 0.0001         | 1.634              |
| B     | 1.558 | 0.250 | 77 |     |         |                |                    |

**4.3.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

SNS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SNS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가 현실 공간보다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1:매우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라는 질문을 이용하여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응답한 대학생들의 51.8%만이 현실공간보다 SNS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대학생들의 SNS 공간에서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awareness of the negative behaviors due to disinhibition effect

| group | 1    | 2    | 3    | 4    | 5    | total | %     |
|-------|------|------|------|------|------|-------|-------|
| A     | 6    | 8    | 28   | 49   | 11   | 102   | 53.4  |
| B     | 14   | 16   | 20   | 25   | 14   | 89    | 46.6  |
| total | 20   | 24   | 48   | 74   | 25   | 191   | 100.0 |
| %     | 10.5 | 12.6 | 25.1 | 38.7 | 13.1 | 100.0 |       |

SNS 공간에 탈억제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그룹 간의 인식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검정에서 모두 p-값이 유의수준 1%보다 작으므로 교육을 받은 그룹(A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B 그룹)에 따라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SNS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SNS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6** analysis result for awareness of the negative behaviors due to disinhibition effect

| group | mean  | var.  | N   | df  | t stat. | P(T<=t) tailed | t dismissed tailed |
|-------|-------|-------|-----|-----|---------|----------------|--------------------|
| A     | 3.500 | 0.985 | 102 | 189 | 2.383   | 0.009          | 1.653              |
| B     | 3.101 | 1.728 | 89  |     |         |                |                    |

**4.4. 단톡방의 부정적 행위 실태와 인식**

SNS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들에 대한 부정적 행위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실시하였다.

- Q1. 단톡이 참여하는 일대일 단톡방(채팅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 Q2. 단톡방에서 비방이 담긴 사설정보지(찌라시)나 게시물, 또는 야한 동영상 전달한 사람은 처벌될 수 있을까?
- Q3. 카카오톡 단체방은 사적인 대화공간인데, 남을 비방했다고 처벌될 수 있을까?
- Q4. 최근 국내 대학에서 카카오톡 단체방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Q5.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심한 음담패설을

나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Q6.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들의 부정적 행위에 해당하는 성립조건을 알고 있습니까?(1:전혀 알지 못한다, ..., 5:매우 잘 알고 있다)
- Q7.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내용들이 부정적 행위에 해당되었을 때, 형사 처벌 기준을 알고 있습니까?(1:전혀 알지 못한다, ..., 5:매우 잘 알고 있다)

단톡방에서 부정적 행위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대일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 ‘단톡방에서 비방이 담긴 사설정보지나 게시물, 야한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세 가지의 부정적 행위에 대해 약 35% 이상의 응답자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그룹 A보다는 그룹 B에서 문제가 되지 않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단톡방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7** status and recognition of negative behavior in the wide talk room

| group | question 1 |      | question 2 |      | question 3 |      | question 4 |      |
|-------|------------|------|------------|------|------------|------|------------|------|
|       | yes        | no   | yes        | no   | yes        | no   | yes        | no   |
| A     | 70         | 32   | 89         | 13   | 69         | 33   | 91         | 11   |
| B     | 56         | 33   | 51         | 38   | 51         | 38   | 65         | 24   |
| total | 126        | 65   | 124        | 67   | 120        | 71   | 156        | 35   |
| %     | 66.0       | 34.0 | 64.9       | 35.1 | 62.8       | 37.2 | 81.7       | 18.3 |

또한, 국내 대학교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와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 7 및 표 8과 같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의 81.7%(156명)는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18.3%(35명)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처벌 여부에 대한 남녀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t-검정에서 p-값이 모두 1%보다 작으므로 남녀 간에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은 94.3%(106명 중 100명)가 처벌해야 한다고 대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55.4%(65명 중 36명)만이 처벌해야 한다고 대답하여 단톡방에서 성희

롱 사건의 처벌 여부에 대한 남녀 간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analysis result for whether collective punishment sexual harassment in the wide talk room

| group  | mean  | var.  | N   | df  | t stat. | P(T<=t) tailed | t dismissed tailed |
|--------|-------|-------|-----|-----|---------|----------------|--------------------|
| male   | 1.813 | 0.154 | 80  | 181 | -3.352  | 0.0001         | 1.653              |
| female | 1.961 | 0.038 | 103 |     |         |                |                    |

단톡방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행위가 어떠한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질문에 대해 ‘성폭력범죄’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19.4%(191명 중 37명)에 불과하고, ‘처벌받지 않는다(13.65), 모욕죄(39.3%), 명예훼손(27.7)’이라고 대답한 학생들이 80.6%로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적 행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 status and recognition of negative behavior in the wide talk room

| group | not punishment | sex crime | contempt | libel and slander | total |
|-------|----------------|-----------|----------|-------------------|-------|
| A     | 14             | 18        | 42       | 28                | 102   |
| B     | 12             | 19        | 33       | 25                | 89    |
| total | 26             | 37        | 75       | 53                | 191   |
| %     | 13.6           | 19.4      | 39.3     | 27.7              | 100.0 |

그리고 단톡방에서 탈억제 효과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정적 행위(명예훼손, 모욕죄, 음란행위, 성범죄/성희롱, 개인정보 침해)의 성립 요건과 처벌 기준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Table. 10** status and recognition of negative behavior in the wide talk room

| group | question 6 |      |      |      |     | question 7 |      |      |     |     |
|-------|------------|------|------|------|-----|------------|------|------|-----|-----|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A     | 2          | 25   | 47   | 26   | 2   | 7          | 42   | 42   | 8   | 3   |
| B     | 4          | 22   | 42   | 15   | 6   | 11         | 35   | 35   | 5   | 3   |
| total | 6          | 47   | 89   | 41   | 8   | 18         | 77   | 77   | 13  | 6   |
| %     | 3.1        | 24.6 | 46.6 | 21.5 | 4.2 | 9.4        | 40.3 | 40.3 | 6.8 | 3.1 |

이들 부정적 행위의 성립 요인에 대해서는 74.3% (191명 중 142명),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90.1%(191명 중 172명)가 모르고 있다고 대답하여 기초 법률 지식, 특히 SNS 공간에서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법률 지식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5. 부정적 행위에 대한 예방 대책

단톡방에서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실시하였다.

- Q8. 대학에서 단톡방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 Q9. 대학에서 부정적 행위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Q10. 부정적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는 교양교과목을 개설하면 수강하시겠습니까?

Table. 11 education for the prevention of negative behavior

| group | question 8 |      | question 9 |      | question 10 |      |
|-------|------------|------|------------|------|-------------|------|
|       | yes        | no   | yes        | no   | yes         | no   |
| A     | 36         | 66   | 87         | 15   | 47          | 55   |
| B     | 5          | 84   | 77         | 12   | 38          | 51   |
| total | 41         | 150  | 164        | 27   | 85          | 106  |
| %     | 21.5       | 78.5 | 85.9       | 14.1 | 44.5        | 55.5 |

단톡방에서 부정적 행위와 관련된 교육이수, 교양과목으로 개설 시 이수 여부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단톡방의 부정적 행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이 2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학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85.9%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지만, 이들 내용을 공부하기 위한 교양교과목을 수강하겠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44.5%로 나타났다.

Table. 12 training method for the prevention of negative behavior

| training method                            | A   | B  | total    |
|--|-----|----|----------|
| case studies and presentation              | 29  | 19 | 48(25.1) |
| movies listening and discussion            | 37  | 38 | 75(39.3) |
| e-learning(education for college students) | 8   | 3  | 11(5.8)  |
| mobile app(education using a smartphone)   | 5   | 8  | 13(6.8)  |
| letter and related subjects course         | 23  | 21 | 44(23.0) |
| total                                      | 102 | 89 | 191      |

단톡방의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방법으로 제시한 방법들 중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교육 방법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2와 같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영상(뉴스 포함) 청취 및 토론, 사례조사 및 발표(구두 또는 문서), 관련 교과목 수강 순으로 교육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상과는 다르게 모바일 앱이나 이러닝은 교육 효과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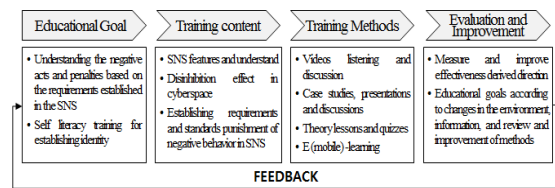


Fig. 1 the education system to the prevention of negative behavior

단톡방에서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검증한 결과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SNS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시급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체계가 구축되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 목표와 내용을 재설정하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피드백을 실시하는 등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 단톡방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행위에 따르는 문제를 예방하는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V. 결론

국내 대학의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혐오 또는 성폭력에 가까운 발언으로 가을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에 ‘카카오톡 단체방 주의보’가 내려졌다. 또한, 5060세대 까지 단톡방에 빠지면서 단톡방 이용자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정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따금 중·장년층 단톡방의 평화가 깨지는 사례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단톡방에서 탈억제 효과로 인한 부정적 행위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러한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행위에 따른 인식이 매우 낮고, 많은 대학생들이 부정적 행위의 성립요건 및 처벌기준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톡방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첫째, 일부 대학생들이 SNS를 자유롭게 의견표출이 가능한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잘못 인지하고 있으며, 교육 및 학습을 실시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많은 대학생들이 단톡방에서 부정적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SNS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부정적 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처벌기준의 인지도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학생들이 SNS에서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법률 지식에 관련된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부정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으로는 동영상 청취 및 토론, 사례조사 및 발표, 교양교과목 수강 등을 선호하였고, 이러닝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 교육은 기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SNS를 통한 정보 전달의 신속성과 순발력, 전파속도에 비해 생산되는 정보에 대한 검증의 한계로 인해 필연적으로 진실과 사실의 왜곡,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갈등과 분쟁의 유발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검증 기구의 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와 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conducted by research funds from Gwangju University in 2016.

### REFERENCES

[ 1 ] MSIP, IT Statistics of Korea,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Internet]. Available: <http://www.itstat.go.kr/home.it>.  
 [ 2 ] KISA, "2015 Mobile Internet Use Survey,"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2015) [Internet]. Available: <http://isis.kisa.or.kr/board/index.jsp?pageId=040100&bbsId=7&itemId=809&pageIndex=1>.  
 [ 3 ] Digieco & DMC Media, "The Present and Future of Social Media 2015," DIGIECO REPORT. [Internet]. Available: [http://www.digieco.co.kr/KTFront/report/report\\_issue\\_trend\\_view.action?board\\_seq=10143&board\\_id=issue\\_trend](http://www.digieco.co.kr/KTFront/report/report_issue_trend_view.action?board_seq=10143&board_id=issue_trend).  
 [ 4 ] Y. H. Kim, "SNS(Social Network Service) utilization trends and analyze usage patterns," KISDISTAT REPORT, Vol-16-07, 2016.  
 [ 5 ] S. H. Hong, "Ordinary People was a Monster, just missing the dilemma Wide talk room," Kukminilbo(2016. 07. 14). [Internet]. Available: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79081&code=61121111&sid1=hea\\_1](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79081&code=61121111&sid1=hea_1).  
 [ 6 ] Y. H. Yoon, "Past 'black history' drifting on SNS, 'Please delete,'" SBS News : Report Plus (2016.08.04.) [Internet]. Available: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14969](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714969).  
 [ 7 ] J. Y. Park, "Court, SNS Dialogue 'Criminal Punishment' ... Want to Strengthened Collective impact on MBC Wide talk room case?" Mediawatch(2016.07.17.) [Internet]. Available: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0408>.  
 [ 8 ] K. Maaria, (2013) "The Psychology of Online Comments," [Internet]. Available: <http://www.newyorker.com/tech/elements/the-psychology-of-online-comments>.  
 [ 9 ] M. S. Yun, *Internet ethics of Digital Society*, Seoul, NICOMS, 2016.  
 [10] S. H. Lee, "A Study on the Policy Implication on the Addiction of Social Media Service User : Focusing on the Proposal of Korean Addiction Index(KSA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 pp. 255-265, Jan. 2013.  
 [11] J. U. Kim, S. C. Park, D. Y. Je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n Factors Influencing SNS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2, pp. 179-185, Dec. 2015.  
 [12] G. C. Jeong, J. H. Moon, "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12the SNS Addiction Proneness in University Student: Mediating Effect of Anger Ex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9, pp. 146-156, Oct. 2015.  
 [13] B. S. Kim, D. K. Kim, "A Study on Antecedents of SNS User's Addiction in the Age of Convergence: The Role of SNS Habi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161-168, Aug. 2015.  
 [14] M. J. Kang, "The Factors Motivating Empathic Responses of Women in their 30s and 40s: Focusing on KakaoStory,"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3, pp. 125-136, Mar. 2015.
- [15] Y. K. Cho, "The Effect of Self-Disclosure on the Intention to Use of SNS in the Digital Convergence Environm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5, pp.139-150, May 2015.
- [16] Y. J. Kim, J. Y. Kim, J. M. Han,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user citizenship behavior, aberrant user behavior, social connectedness, privacy concern, and user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3, no. 11, pp. 4994-5004, Nov. 2012.
- [17] B. S. Chon, "Perceived Homophily by the Degree of Self Disclosure among SNS User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12, pp. 170-178, Dec. 2012.
- [18] M. J. Kim, "A Study on SNS Usage Behavior using Correspondence Analysi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6, pp. 395-403, Jun. 2016.
- [19] W. S. Moon, S. S. Kim, "A Post-Management System of Digital Assets on Social network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3, pp. 209-214, Mar. 2015.
- [20] NATEQ, Is SNS a personal space? What do you think? [Internet]. Available: <http://comm.news.nate.com/nateq>.



강문설(Moon-Seol Kang)

1994년 2월 전남대학교 대학원 전산학과 이학박사  
1994년 9월 ~ 현재 광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소프트웨어공학, 컴포넌트기술, 컴퓨터교육, 인터넷윤리